

함축의 미학적 번역에 관한 연구 - 데보라 스미스의 *Human Acts*를 중심으로

신 상 범
(부산외대)

1. 서론

번역은 원천어로 표현되어진 텍스트를 의미가 같은 목표어로 옮기는 작업이지만 단지 언어적인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언어라는 표현형식, 즉 텍스트는 다양한 생각, 정보, 감정을 교환하는 인간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더구나 텍스트가 현실적이거나 실재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고, 상상적인 것, 가능성인 것, 유토피아적인 면까지도 포괄한다면 번역은 더 이상 의사소통이 아니며, 해석의 영역으로 그 위치가 옮겨간다(Ricoeur 2006: 46). 그러므로 번역은 텍스트 내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세계관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후 이것을 다른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방식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작업이다.

더구나 문학텍스트가 담고 있는 심미적 성격은 독특한 언어 사용에서 나오

기에, 심미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문학텍스트 속의 단어나 구문은 함축적, 내포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의성도 가진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원문의 함축적 표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함축의 다의성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어야 목표언어 독자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심미적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최근 들어 스미스의 한강의 문학작품 번역에 대한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17년 이탈리아의 말라파르테(Malaparte)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이탈리아어 번역이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영역본 *Human Acts*를 증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미스의 번역이 지닌 문학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Human Acts*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수상함으로써 작가 한강의 후속 번역작이라는 후광이 충분히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영미문화권 독자들이 매우 높은 수용태도를 보인 면은 스미스의 번역이 크게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미스가 취한 번역의 여러 방법 중 원문에 함축된 내용을 단순히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번역한 것이 아닌, 원문의 독특한 분위기나 정취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 담화상황에 적합한 어휘 선택과 문장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원문의 문학적, 미학적 효과와 감동을 드러낸 번역을 실천하였음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고는 문학텍스트에서 함축(connotation)의 미학적 번역을 살펴보는 연구로, 문학텍스트에서 구체적 혹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함축된 내용과 저자의 의도를 문학 번역의 번역가는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미학적인 장치를 가미하여 번역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함축이란 실제로 말한 것 이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가에 관한 문제이다. 화자가 말한 것을 글자 그대로 지시하기보다는 화자가 의미하는 것 또는 암시하는 것을 지시하기 위해 ‘함축’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Baker 1992: 223). 이러한 함축의 번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3. 이론적 배경

3.1 외연과 함축

우선, 외연과 함축의 두 용어를 구별해보면, 외연은 지시적, 객관적, 인지적인 의미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는 해당 단어나 문장으로 이루어진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속성이다. 반면에 함축은 연상적, 주관적, 감성적 의미를 지칭한다. 함축의 의미는 전체 언어공동체에 의해 공유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Bell 1981: 98). 또한 리치(Leech 1981: 12; Fawcett 1997: 23 재인용)에 의하면, 함축은 연상 의미(associative meaning)의 한 측면에 불과하며, 한 단어에 포함된 모든 의미 요소에 있어 실질적 혹은 중심적인 의미는 없으며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귀여운 애완동물로 여기는 문화권이 있는 반면, 군침 도는 음식으로 생각하거나 도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골칫덩이로 취급하는 나라도 있다.

다양한 함축 번역 기법을 제시한 라드미랄(Ladmiral 1979; Fawcett 1997: 20 재인용)은 번역가가 함축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함축적 의미보다는 외연적 의미를 옮기는 경우를 ‘비번역(nontranslation)’이라 명명하고, 함축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는 경우를 ‘주변부 지식 제공 번역(periphrase)’이라 칭했다(1979: 219). 아울러, 그는 함축이 외연보다 더 중요할 경우, 외연을 희생시키더라도 함축을 위주로 옮기는 방식을 ‘최소 오역(minimal mistranslation)’이라 불렀다(1979: 244).

번역가는 원천텍스트의 지시적 의미뿐만 아니라 또한 함축적 의미, 즉 함의까지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함의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 이상으로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나 조건을 포함하게 된다”(김옥동 2011: 77). 그러므로 훌륭한 번역가는 “비록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문장 속에 내포되어 있는 상황적 의미까지도 헤아려 옮겨야 한다.”(김옥동 2011: 77). 번역가는 원문의 독특한 분위기나 정취를 제대로 파악하여 섬세한 어휘 선택과 문체의 자연스러움을 살려서 합리적 외연 정보와 함께 그 정보에 생명력을 담아내야 한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번역 실천을 위해서 “번역가는 특정

노은주(2019)는 함축의 명시화 현상에 대해 원저자의 전달 의미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를 번역의 비가시성 강화라고 보는 주장과 비교한다. 부사 just의 의미를 소개한 후, 『채식주의자』의 영역본 *The Vegetarian*에서 이용된 just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함축의 명시화 현상을 연구하였다. 번역가가 just의 빈번한 사용으로 원작의 긍정성이나 부정성을 강화한 특징은 비가시성의 강화이기 보다는, 원문에 함축된 것을 단지 명시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본다. 즉, just의 빈번한 사용은 내용의 충실성에 부합하고, 독자의 해석 과정의 노력을 덜게 하여, 적합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광호(2019)는 함축 의미 전달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점과 정확한 함축 의미 파악과 전달을 위하여 문장의 정보 구조와 담화 맥락의 요소가 통·번역에서 하는 역할을 논의한다. 또한 통·번역에서 무엇이 함축 의미의 등가성 유지를 어렵게 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 문제들의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자는 한국어의 정보 구조와 영어의 정보 구조의 차이점을 논의하고 또한 영어의 강조 구문과 한국어 분열문과 영어의 외치 구문을 비교하여 초점의 위치와 이에 따르는 함축 의미의 변화와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번역가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유사한 영어 문장들의 함축 의미와 뉘앙스 차이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장을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논의한다.

이상으로 함축의 번역에 관한 선행연구는 함축의 명시화 현상과 한국어의 정보 구조와 영어의 정보 구조의 차이에 따른 함축 의미의 변화와 맥락의 중요성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문학텍스트 내에서 함축의 의미 구현과 그에 따른 번역 결과물의 미적 효과가 원천텍스트와 어느 정도 등가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고는 번역가가 원문의 함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담화상황에 적합한 어휘 선택과 문장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합리적 외연정보와 함께 그 정보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원문의 문학성이 손상되지 않게 미학적 효과와 감동을 구현하였는지 논의할 것이다.¹⁾ 이러한 점이 본 연구가 가진 차별성이라 할 것이다.

1) 번역가의 입장에서라도 예술작품의 심미성을 재현하고자 하는 창작적 욕구와 직업윤리가 존재하므로 원전의 예술성을 기대하는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예술성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한다(원은하, 진실로 2020: 135).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의 부가적인 부분을 찾아서 번역해야 한다. 드러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을 번역하고, 함축적이고 추론적인 내용을 번역하며 어휘와 어휘의 빈 공간을 번역하는 것이 번역가의 당연한 임무”(Esperanca 2009: 5-6)라고 할 수 있다.

3.2 미학적 번역

문학 텍스트의 미학적 효과를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문학 번역에서 미학적 가치의 구현은 번역가가 원천텍스트의 의미 파악과 더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여러 미학적 장치들까지 읽어내어 그것을 번역어로 담아내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라이스(Reiss)에 의하면, 문학작품은 표현적이고 형식 지향적(form-focused)이며, 원문의 저자가 언어의 미학적 차원을 활용하거나 그 메시지의 형식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는 ‘표현중심 텍스트’라고 했으며, 또한 문학작품 텍스트가 원문의 독자에게 주는 효과를 번역문 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로 상응하게 줄 수 있느냐를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해야 함으로 효과중심 텍스트로서의 성격도 강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번역 방법으로 원천텍스트 저자의 관점에서 동일시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unday 2001: 74).

벤야민(Benjamin 1996)은 「번역가의 과제」에서 문학작품의 본질적인 속성을 서툰 번역가라도 인정할 불가해하고 신비로우며 ‘시적인 것(poetic)’으로 보며, 번역가 자신이 시인이기도 해야만 재현할 수 있는 그 무엇(253)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문학에서 본질적인 것은 진술이나 정보전달이 아니므로, 정보의 전달만을 목적으로 한 번역은 비본질적인 것만 전달한 서툰 번역이라는 것이다. 즉, 그는 번역의 목적이 단순한 의미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 속에 숨겨진 ‘포착할 수 없는 것, 신비스러운 것, 시적인 것’을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253). 이와 같이 번역은 ‘시적인 것’을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번역은 원작의 의미를 단순하게 복제하는 작업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시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문학적, 미학적인 면을 담아내는 창의적 작업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벤야민은 “번역가의 근원적인 활동 영역은 문장이 아니라 말”(Benjamin 1996: 260) 즉 담화의 차원에 있다고 보았다. 번역가

는 단어와 문장의 단순한 의미의 재현이 아닌 담화 상황을 목표어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벤야민은 번역가는 번역되는 외국어의 수단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확장·심화(Benjamin 1996: 262)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번역가는 자신의 언어가 가진 장벽을 극복하고 그 언어를 한층 더 풍요하게 확장·심화되도록 원문의 이국적인 분위기나 정서, 어휘 등의 번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번역은 낯선 언어와 모국어의 만남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모국어 체계를 변형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창작으로까지 이를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벤야민이 ‘원문의 생명이 번역 속에서 항상 새로운 최신의 것으로 가장 풍성한 꽃을 피우게 된다.’(Benjamin 1996: 255)고 주장한 것이나 ‘번역가는 순수언어²⁾를 위해 자신의 언어의 낡은 장벽을 무너뜨린다.’(261)고 주장한 의미는, 번역은 단순히 원문과 동일한 어떤 것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원문의 어떤 것을 증폭하고 쇠신할 그 무엇’(윤성우 2012: 183)을 번역어에 담아 새로운 기입하는 것임을 피력한 것이다.

위의 논의된 관점에서 볼 때, 미학적 번역의 실천방법으로 번역가는 직역에 얽매인 단어에 충실한 정보 제공의 번역을 지양하고, 원작의 문체와 효과를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번역가는 언어에 대한 시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원천텍스트 문체에 충실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문체로 문학적 긴장감을 일컫어 독자의 적극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고 글의 흐름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주는 문학적, 미학적인 면을 담아내야 한다. 즉 번역가가 원작이 지닌 낯선 문화의 향기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번역된 언어의 훌륭한 문학작품처럼 독자가 향유하여 읽어 나가도록 번역하는 것이 미학적 번역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벤야민은, 언어는 ‘전달 가능한 것의 전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달 불가능한 것의 상징’(Benjamin 1996: 261)이라고 내세우며 전달 불가능한 것은 ‘순수언어’와 연관시킨다. 그는 ‘순수언어’는 ‘각 언어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총체성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언어’이며 언어들은 ‘초역사적 친화성’(Benjamin 1996: 257)을 가지며, 이 친화성이 어떤 작품의 번역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4. 텍스트 분석

4.1 『소년이 온다』와 *Human Acts*의 작품개요

선행연구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광주에서 일어난 5·18항쟁과 학살사건을 기본 배경과 구성으로 두고 거기에 일곱 개의 후일담으로 구성된 소설이다. 그 당시 고통스럽게 숨죽이며 살았던 인물들의 상처를 되새기고 그 희생자들의 아픔을 그려내고 각성을 촉구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항쟁 초기의 무자비한 진압과정 속에서 실종된 20대 초반인 여성노동자 정미, 누나를 찾아 헤매다가 군인들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그녀의 15살의 남동생 정대, 같이 있던 친구 정대를 보호하지 못한 죄의식으로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돕고 이후 도청을 사수하다가 군인들의 진압과정에서 비무장 투항을 하지만 조준 당해 죽은 동호, 동호와 함께 일하던 여고생 은숙, 최후의 진압일 새벽에 시민에게 차량방송을 했던 여성노동자 선주, 시민군에서 활동한 대학생 진수, 동호의 어머니 이들이 주요인물이다. 5·18 항쟁이후 동호와 같이 상무관에서 서로 돕던 형과 누나들은 살아남았지만 치욕스럽게 느끼며 후유증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이다.

『소년이 온다』는 1장에서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2장부터는 1장에서 언급된 인물들이 하나하나 초점 인물이나 화자가 되어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지민 2018). 이런 방법을 통해 작품 전체에 걸쳐있는 일곱 개의 시선이 표현된 작품 구조를 목표텍스트 독자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를 대표하는 각각의 인물이 증언하는 “강동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여섯 명의 서로 다른 인물이기도 하지만 저마다 하나씩의 시대이기도 하다”(서영채, 2014)는 구성을 목표텍스트 독자들이 더욱 쉽게 파악하게 된다.

『소년이 온다』의 소년은 강동호를 말하며 등장인물의 상징성을 강조한 제목으로 명시되었지만, 목표텍스트에서는 *Human Acts*로 바꾸어 인간성을 주제로 담아낸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소년이 온다』에서는 소재목이 장별로 주요 이미지 또는 주제로 명시되어있는 반면, *Human Acts*에서 번역가는 목표텍스트 독자의 인물 파악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장별로 주인공과 연도를 명시했다.

다시 말해서 원천텍스트 독자들이 작품을 면밀히 읽어가며 이해해야 하는 주제와 장별 구조의 제목은 각각 주요 이미지 또는 주제로 명시되면서 함축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번역가 스미스는 주제정보를 세심하게 조정하여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목표텍스트의 독자가 편하게 작품 전체에 걸쳐져 있는 일곱 개의 시선이 담겨있는 작품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와 장별 구조의 소재목을 각 장의 주인공과 연도를 사용하여 변경하였다. 그 결과, ‘번역문의 소재목에서 상실된 주제 정보를 번역문의 대체목을 *Human Acts*로 바꿈으로써 균형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이지민 2018). 즉 번역문의 대체목과 소재목은 원문의 함축된 대체목 소재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체목/소재목 변경 내용과 각 장의 화자/주인공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대체목 / 소재목 번역과 화자(이지민 2018; 신상범 2020)

	ST	TT	화자/주인공
대제목	소년이 온다	<i>Human Acts</i>	
1장	어린 새	The Boy, 1980	동호
2장	검은 숲	The Boy's Friend, 1980	정대
3장	일곱개의 뺨	The Editor, 1985	은숙
4장	쇠와 피	The Prisoner, 1990	수감 대학생
5장	밤의 노동자	The Factory Girl, 2002	선주
6장	꽃 핀 쪽으로	The Boy's Mother, 2010	동호 어머니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	The Writer, 2013	작가

4.2 사례 분석

본 연구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영역본 *Human Acts*를 상호대조하여, 번역가가 함축의 의미를 담아내면서 원문의 문학성이 손상되지 않고 담화상황과 문학적, 미학적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번역방법을 사용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네 가지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범주화했다. 텍스트 분석의 결과는 먼저 거시적 차원으로는 (1)어휘 차원, (2)문장 차원으로 분류하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3)이텔릭체 문체의 활용, (4)부가 정보로 분류하여 그 결과의 특성을 제시하겠다.

4.2.1 어휘 차원

아래의 예문은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시신들을 상무관에서 시민들이 관리하는 일을 돕는 동호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다.

[예시 1]

(ST) 바지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쓴다.

초를 태워도 아무소용 없네.

냄새를 견디며 너는 강당에 들어선다. (한강 11)

(TT) You get your surgical mask out from your trouser pocket and put it on.

These candles are no use at all

You step into the gym hall, fighting down the wave of nausea that hits you with the stench. (Smith 11)

‘냄새를 견디며’의 함축 표현을 직역하지 않고 ‘악취로 너를 때리는 메스꺼움의 기류를 이겨내면서(fighting down the wave of nausea that hits you with the stench)’로 표현하였다. TT는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에 대한 반응의 표현을 원문의 의미와는 차이가 나지만 뛰어난 감각적 묘사의 표현으로 원문이 함축하는 의도와 분위기를 잘 담아내고 있다.

다음 예문은 정대가 억울하게 죽은 후 차량에 실려 간 사람들의 처리과정에 하소연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예시 2]

(ST) 목이 터져라고 애국가를 따라 불렀는데. 그들이 내 옆구리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탄환을 박아넣기 전에. 저 얼굴들을 하얀 페인트로 지워 버리기 전에. (한강 59)

(TT) I sang along with the national anthem, my heart fit to burst. Before they sent that white-hot bullet driving into my side. Before those faces were cancelled out, expunged by white paint. (Smith 63)

‘목이 터져라고’는 ‘온 힘을 다하여’를 뜻한다. ‘my heart fit to burst(가슴이

메어 터질 정도로)’로 표현하였다. 단어에 충실한 정보 제공의 상투적인 표현을 피하고 참신한 관용어를 사용하였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그 함축하는 의미를 제대로 반영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은 동호 엄마가 살인마 대통령 전두환이 광주를 방문한다며 분노하며 말한 내용이다.

[예시 3]

(ST) 그 군인 대통령이 온다고, 그 살인자가 여기로 온다고 해서…… 네 피가 아직 안 말랐는다. (한강 188)

(TT) Our military thug of a president is coming here to Gwangju, she told me, that butcher dares to set foot in our city when your spilled blood had barely had time to dry. (Smith 198-96)

‘그 군인 대통령’을 함축하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thug(폭력 군대)’을 이용하여 ‘폭력 군대 수장’이라고 번역되었다. 표현에서 원문과 의미에서 차이나지만 동호 엄마의 분노의 심정을 헤아린 원문의 의도에 접근한 번역이다.

아래의 예시는 동호 어머니가 죽은 동호의 아기 시절을 기억하는 장면의 독백이다.

[예시 4]

(ST) 어찌꼬나. 젓먹이 적에 너는 유난히 방긋 웃기를 잘했는다. (한강 191)

(TT) My Dong-ho, I never knew a baby look so happy to be breastfeeding.(Smith 31)

‘어찌꼬나’ 이 말은 ‘어떻게 할까’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전라도 사투리이다. 아쉬움과 탄탄의 마음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여기에서는 동호 엄마가 계엄군에게 총살당한 동호를 그리워하는 함축된 표현이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심정이 함축된 ‘어찌꼬나’를 TT는 ‘My Dong-ho’로 번역하여 원문의 중의성과 의도를 제대로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즉, 번역가는 목표텍스트

의 독자가 원작의 울림에 공감하도록 원문의 의도와 문학적 감수성을 담아낸 번역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4.2.2 문장 차원

아래의 예시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서 희생되어 시위 현장에 가기를 주저한다는 내용이다. 번역에서는 함축된 내용을 담아내고 맥락에 맞게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도 중의성을 표현했다.

[예시 5]

(ST) 관 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한강 22)

(TT) Every day there are more coffins; people are starting to think twice about venturing out of doors. (Smith 23)

출친 부분처럼, 스미스는 피상적인 의미만 옮기지 않고, ‘과감하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로 표현하여 원문에 함축되어진 의미를 담아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 따라 시위 군중들이 차츰 줄어들어가는 원문의 함축적, 내포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의성도 살려 번역한 표현이다.

아래 예문은 수감 대학생이 광주 항쟁 중 잡혀온 고등학생이 감방에서 겪은 고초를 서술한 부분이다.

[예시 6]

(ST) 무심코 손을 움직여 얼굴을 만진 고등학생을,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질 때까지 때리고 밟았습니다. (한강 106)

(TT) One of the high school kids inadvertently scratched his neck, once; him, they beat until he lost consciousness and went as limp as a rag doll. (Smith 112)

원문의 ‘손을 움직여 얼굴을 만진’이 환기 시키는 분위기를 살리려고 번역

에서는 ‘목을 꺾다’로 표현하였다. 뒤 문장에서는 목적어 뒤에 쉼표를 두면서 ‘him,’으로 표현하였다. 목적어의 도치와 구두점을 사용하여, 문학적 긴장감을 일으켜 글의 흐름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축 늘어지다’를 ‘형질 인형처럼 축 늘어지다(*go as limp as a rag doll*)’로 표현하였다. 원문에서 직접 명시되지 않은 비유법을 추가하여 독자의 적극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함축적, 내포적 의미를 제대로 담았다고 하겠다.

아래의 예문은 실종된 동호를 애타게 그리는 어머니가 동호를 거리에서 찾아다니는 장면이다.

[예시 7]

(ST) 알 수 없다가, 그날은 왜 내가 이름 한자리 못 불러봤는지. 입술 이 달라붙은 사람맨이로, 썩썩 숨만 몰아쉬스로 뒤를 밟았는지. 이 번에 내가 이름을 부르면 얼른 돌아봐라이. 대답 한자리 안해도 좋은게, 가만히 돌아봐라이. (한강 180)

(TT) I can't get my head around why I didn't just call your name that day. Why I just came tottering on behind, struggling for breath and dumb as a mute. If I call your name next time, will you please just turn around? You don't need to say 'yes, Mum?' or anything like that. Just turn round so I can see you. (한강 188)

‘대답 한자리 안해도 좋은게’를 ‘응 엄마(yes, Mum?)’를 추가 하여 ‘You don't need to say 'yes, Mum?' or anything like that.’로 번역하여 함축된 의도를 반영하였다. ‘가만히 돌아봐라이’를 ‘Just turn round so I can see you.’로 표현하여 원문에서 어머니가 실종된 동호를 애타게 그리는 마음이 담긴 중의성과 의도를 번역문에서 제대로 살렸다고 할 수 있다.

4.2.3 이탤릭체 문체 활용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의 독백, 직접 발화, 회상, 목소리 등이 이탤릭체로 담아서 표현되고 있다. *Human Acts*에서는 원문의 이해와 맥락의 흐름을 쉽게 하기 위해 아래의 예시들처럼, 원문에서 어떤 경우에는 대화, 생각, 노래 등을 함축한다. 이러한 표현들이 정자체로 표기되었지만 번역문에서는

이탤릭체 문체로 빈번히 바뀌어 번역가는 자신만의 문체로 발전시킨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즉 영역본에서는 이탤릭체의 담화적기능이 확장되어 나타난다.

아래의 예시는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른 후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의 서술이다.

[예시 8]

(ST) 시간을 벌기 위해선지, 마이크를 쥔 여자가 이번엔 아리랑을 부르자고 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입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울음소리가 잦아들 즈음 여자가 말한다. 먼저 가신 입들을 위해 묵념합시다. (한강 10-11)

(TT) The woman holding the microphone suggests they all sing 'Arirang' while they wait for the coffins to be got ready.

*You who abandoned me here
Your feet will pain you before you've gone even ten ri...*

When the song subsides, the woman says, 'Let us now hold a minutes silence for the deceased.' (Smith 10)

원문 독자에게는 아리랑이 노래로 바로 인식된다. 원문에서는 정자체로 명기되었는데 번역문에서는 맥락에서 함축하는 의미가 노래임을 표현하기 위해 이탤릭체 문체로 전환하였다. '영어권 글쓰기에서 노래 제목이나 노래가사는 이탤릭체로 표현'(조의연 2016: 270)되는데 번역가는 위와 같이 이탤릭체로 전환하였다.

아래의 예문은 정대의 누나의 성격을 서술한 부분이다.

[예시 9]

(ST) 누군가를 때리기는커녕, 화 한번 시원하게 내본 적 없을 것처럼 걸음

이 가볍고 목소리가 조용한 사람이다. 하지만 정대는 혀를 내두르며 너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아버지 보다도 누나가 훨씬 무서워. (한강 37)

(TT) Far from being the type to thrash anyone, her light tread and quiet voice makes it impossible to imagine her ever getting properly angry. And yet, according to Jeong-dae, she had strong opinions on certain matters, and was more than capable of holding her own in a debate. It's just that people don't know. She's actually even more stubborn than my dad. (Smith 40).

원문에서 정자체로 된 정미누나에 관한 정대의 설명을 이탤릭체로 표현하여 정대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이탤릭체에서 표현된 누나가 완고하다는 의미를 보완하기 위해 번역가는 '누나는 어떤 문제에 주관이 강하고, 토론에서 그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다'를 추가하였다. 즉, 스미스는 맥락을 고려하여 정미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아버지 보다 무섭다는 정대 말의 함축하는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였다.

아래의 예시는 시위 현장에서 절박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의 내용이다.

[예시 10]

(ST) 나보다 강한 몇몇 사람이 다시 거리 가운데 모여, 예비군 훈련소에 가서 총을 가져오자고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①가만있으면 다 죽어요 우릴 다 싸 죽일 거란 말이오 우리 동네는 집에까지 공수들이 들어왔소 무서워서 나는 머리맡에 식칼을 두고 잤소. ②말이 됩니까, ①저쪽은 총이 있는데. 수백 발을 저렇게 백주 대낮에 쏘는데! (한강 115)

(TT) A small group had gathered in the street, and I heard them talking about raiding the police stations and reserves barracks to get guns. They were clearly made of much sterner stuff than I was. ①*We're sitting ducks like this. They'll gun us down, the lot of us. Paratroopers even broke into the houses in my area. I was so scared I slept with a kitchen knife by my pillow. Shooting hundreds of rounds like that in broad daylight* - ②*I'm telling you, the world's gone mad!* (Smith 121)

①에서 원문의 정자체인 목소리의 내용을 번역문에서는 이탤릭체로 표현하였다. ②에서 원문의 ‘말이 됩니까’가 함축하는 의미를 담아 'I'm telling you, the world's gone mad!(세상이 미쳤어요)'라고 표현하였다. 원문에서 정자체인 절박한 울림의 목소리를 번역문에서는 ‘기울어진 이탤릭체의 떨림처럼 떨리며 전달되고’(조의연 2016: 27)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은 동호 어머니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전두환의 광주 방문에 절규하며 소리치는 장면의 서술이다.

[예시 11]

(ST) 난간에 기대서서 현수막을 길게 내리고 소리 질렀다야. 내 아들을 살려내라야. 살인마 전두환을 찢어죽이자야. 정수리까지 피가 뜨거워지게 소리 질렀다야. (한강 189)

(TT) I steadied myself against the railing, unfurled the banner and screamed. Chun Doo-hwan, you murdered my son. Let's tear that bloodthirsty butcher to pieces. (Smith 197)

원문의 고탍치는 부분이 정자체로 표현되었지만 번역은 함축된 의미를 살려서 이탤릭체로 표현되었다.

4.2.4 부가 정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함축된 내용과 저자의 의도를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통해 설명을 부가하는 것이 ‘주변부 지식 제공 번역’(Ladmiral, 1979)이다. 스미스는 함축을 살리면서 정보를 세심하게 조정하여 목표텍스트의 독자가 편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심미적 즐거움을 갖도록 번역하였다.

아래의 예시는 동호가 방직공장 다니는 정미 누나와 처음으로 나뉜본 긴 이야기의 일부이다.

[예시 12]

(ST) 세상이 바뀌어서, 인제부터 함부로 잔업을 못 시킨대. 월급도 오를

거래. 이 기회에 공부를 해보려고. (한강 38)

(TT) ‘The world's changed since they assassinated President Park. The labour movements gathering strength, and now our bosses can't force us to work overtime any more. They're saying our salaries will go up too. This c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me, I need to take advantage of it. I want to start starting again. (Smith 41)

‘세상이 바뀌어서’의 번역에서 ‘since they assassinated ... strength’를 부가하여 문맥에서 함축하는 의미인 ‘박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세상이 바뀌었다. 노동운동이 힘을 갖게 되어’로 표현하였다. 번역가는 독자가 처리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 당시 한국의 정치, 경제상황을 부가하여 독자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심미적 즐거움을 누리게 번역하였다. 즉, TT는 어휘의 의미전달에 대한 충실성보다는 함축의 담화상황을 제대로 담아 표현하였다고 분석된다.

아래 예문에서는 시위현장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수감방 안에서 고통스러운 취조과정과 고문을 떠올리는 장면의 일부이다.

[예시 13]

(ST) 조사실에서 방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정좌를 하고 정면의 철창을 똑바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한강 106)

(TT) Once you were told to leave the interrogation room and go back to your cell you might be forgiven for thinking that you'd be able to relax, to let your guard down a bit. But that would be a mistake. We had to sit on the floor of the cell for hours at a time, shoulders and back ramrod straight. Eyes front, too, directly at the window. (Smith 112)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를 ‘you'd be able to relax, to let your guard down a bit. But that would be a mistake.(긴장을 풀고, 경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라 번역했다. 번역문에서는 원문에 없는 ‘let your guard down a bit. But that would be a mistake’를 추가하여 잡혀온 시위대의 현재 상황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구문을 첨가하여 함축된 상황과 의미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번역가는 원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여 합리적 외연 정보와 더불어 그 정보에 긴장감을 붙여 넣는 번역을 하였다.

아래 예문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는 선주가 정미를 떠올리는 장면이다. 합리적 외연 정보는 물론 그 정보에 생명력을 담아 문학성을 살린 표현들이다.

[예시 14]

(ST) 곧 의사가 올 거야.

주문처럼 그가 되풀이하는 말을 들으며 당신은 의자 끝에 꼼짝 않고 앉아 있다. 오래전 당신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여자 애를 생각한다.
(한강 163-64)

(TT) *The doctor will be here any minute.*

You remain perched on the edge of your seat, back rigid, listening to the uninjured man repeat those words like a mantra. *The doctor will be here any minute.*

YOU REMEMBER

You remember the girl who once told you that she wanted to be a doctor, all those years ago. (Smith 171)

원문의 ‘곧 의사가 올 거야. 주문처럼 그가 되풀이하는 말’을 번역에서는 ‘되풀이하는 말’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뒤 내용과 연결되는 클로즈업 효과를 위해 ‘The doctor will be here any minute.’가 한 번 더 추가되었다. 또한 ‘의사’라는 단어로 인해서 서술자가 ‘여자 애(정미)’를 떠올리며 ‘정미’와의 추억이 전개되는 부분임을 YOU REMEMBER 첨가하여 ‘오래전 당신에게 ... 생각한다’를 다른 단락으로 처리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되도록 함축된 의미를 살린 미학적 측면을 고려한 세심한 표현이다.

추가된 부분이 원작에의 충실성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논자들은 과도한 번역자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스미스의 번역은 원문의 형태로 부터 자유를 누렸지만, 그 형태가 만든 효과로 부터 자유를 누린 것은 아니다. 직역에 얽매어 단어에 충실한 정보 제공의 번역을 지양하고, ‘불

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상황적 맥락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윤미선 2020: 185)을 하였다. 즉 원문을 더 풍부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담아내어 독자의 심금을 울린 스미스의 번역이 오히려 원작에 더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이상으로 본 연구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스미스의 영역본 *Human Acts*의 대조를 통해, 번역가가 원문의 함축된 내용과 미학적인 가치를 담아내면서 더불어 독자의 이해도를 높인 전략을 어휘 차원, 문장 차원, 이탤릭체 문체의 활용, 부가 정보로 분류하여 그 결과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와 문장 차원에서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도 독자의 적극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고 함축된 내용과 다의성을 살려 맥락에 맞게 표현했다. 이탤릭체 문체 활용에서는 원문의 대화, 생각, 노래 등이 정자체로 표기되었지만 이탤릭체로 바꾸어 그 담화적기능이 확장되어 나타나면서 번역가는 자신만의 문체로 발전시켰다. 마지막으로 부가 정보에서는 문장 속에 내포된 상황적 의미 까지도 부가하여 옮겨 합리적 외연 정보와 함께 그 정보에 생명력을 담아내어 표현하였다.

정리하면, 스미스는 여러 번역방법을 사용하여 원문에 함축된 내용을 단순히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번역한 것이 아닌, 원문의 독특한 분위기나 정취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 담화상황에 적합한 어휘 선택과 문장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구현하여 합리적 외연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그 정보에 생명력을 붙여 넣어 원문의 문학적, 미학적 효과와 감동을 드러낸 번역을 실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스미스는 창의적인 노력과 문학적 감수성을 발휘하여 원문이 가진 함축적인 의미를 살리면서 예술적인 가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담아내면서 원문을 더 밝게 조명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미스는 문학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 혹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함축된 의미를 목표독자가 추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미학적인 장치를 가미한 번역을 실현하였다.

번역가는 원문이 지닌 미학적 효과를 담아내도록 탁월한 언어 감각과 문학

적인 감성을 키워야 한다. 또한 번역가는 ‘직역 의역의 논리를 넘어 텍스트의 내적 일관성’(산상범 2019: 220) 을 유지하면서 원문의 언어적 문화적 이질성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 원문의 문학적 미학적 효과를 담은 번역텍스트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적인 결정과 비평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은 정성적 분석에 바탕을 둔 필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기준을 갖지 못한 점 그리고 수용자 반응 조사 연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차후 후속 논문으로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옥동 (2011) 『번역의 미로』, 파주: 글항아리
- 노은주 (2018) 「적합성 제고를 위한 합축의 명시적 번역: 영역본 *The Vegetarian*에 사용된 부사 just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4): 59-85.
- 서영채 (2014) 「문학의 윤리와 미학의 정치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성서체의 『투명인간』에 대하여」, 『문학동네』 2(3): 1-21.
- 산상범 (2019) 「창의적 해석에 의한 문학번역에 관한 연구」, 『한국통번역교육학회』 17(3): 207-23.
- 산상범 (2020)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 *Human Acts* 번역전략 연구」, 『한국통번역교육학회』 18(1): 137-160.
- 원은하, 진실로 (2020) 「문학 작품의 다언어(multilingualism)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21(2): 117-141.
- 윤미선 (2020) 「영상 번역의 결텍스트: 한국 영화 번역본의 오프닝 크레딧 분석」, 『번역학연구』 21(2): 166-192.
- 이광호 (2019) 「분열/외치 구문의 합축 의미와 한/영 통·번역」, 『한국통번역교육학회』 17(3): 75-92.
- 이지민 (2018)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에 나타난 정보성 조정 전략 연구」, 『통역과 번역』 20(2): 97-121.
- 조의연 외 (2016) 「『소년이 온다』 이탤릭체의 담화적 특성」, 『영어권문화연구』 9(3): 257-274.

- 한강 (2014) 『소년이 온다』, 서울: 창비.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ssnett, Susan (1988)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Bell, Roger (1991)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Longman.
- Esperanca, Bielsa & Susan, Bassnett (2009) *Translation in Global News*, London: Routledge.
- Benjamin, Walter (1968) ‘The Task of the Translator’, in Harry Zohn(eds) *Illuminations*, New York: Schocken, 69-82.
- Benjamin, Walter (1996). *Walter Benjamin Selected writing Bullock, M & Jennings, M(eds)*. Cambridge: Harvard UP.
- Fawcett, Peter (1997) *Translation and Language.: Linguistic Theories Explained*, New York: Routeledge.
- Ladmiral, Jean Rene (1979) *Traduire: Théorèmes Pour La Traduction*, Paris: Payot.
- Leech, Geoffrey (1981) *Semantics: The Study of Meaning*,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s Studies: Theories &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 Ricoeur, Paul (2006) *On Translation*, New York: Routeledge.
- Smith, Deborah (2016) *Human Acts*, London: Portobello Books Ltd.

[Abstract]

**A Study on Translation Considering the Connotation and Aesthetic Effect
— Focused on Deborah Smith's *Human Acts***

Shin, Sangbeo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xamine how a translator figures out and contains the meaning of the connotation within literary texts in considering the discourse situation and aesthetic effects while not damaging the intention of the original texts. To attain this end, this study ha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connotation and the literary, aesthetic translation. This paper also compared Deborah Smith's *Human Acts* with Han Kang's *The Boy is Coming* to analyze the translation of connot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words, sentence, italic style, and added information. To creatively translate the meaning of the connotation within literary texts considering the discourse situation and the aesthetic effect, translators ought to possess fluent language skills for both target and source languages. Besides, translators ought to have the capability to express the discourse situation and literary, aesthetic effects, as well as accurate understanding and critical thinking.

▶ Keywords: *Human Acts*, Deborah Smith, Discourse Situation, Aesthetic Effect, Creative Translation, Connotation

▶ 주제어: 『소년이 온다』, 데보라 스미스, 담화상황, 미학적 효과, 창의적 번역, 함축

신상범

부산 외국어 대학교 영어학부 강사

ssb1357@naver.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화번역, 번역철학

논문투고일: 2020년 11월 8일

심사완료일: 2020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30일